

## 편집자 서문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제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것임을 보면서 다음의 성경구절이 생각한다. 디모데후서 2 장 2 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임동선 목사님은 영감을 주는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를 접하면 늘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긴다.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였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동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정을 함께 불 태우게 하는 복음의 견인자 였다.

임동선 목사님은 이민목회자요 전도자요, 또 교육자로 활약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삶을 오롯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사르고, 후배들의 가슴에 그 불씨를 옮겨 놓고는 홀연히 주님의 품으로 떠났다.

임동선 목사님은 동양선교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워 복음전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놓았다. 우리는 이제 그 분의 정신을 본 받아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을 안게 되었다.

동양선교교회는 선교자원을 개발하여 선교 동력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여 선교지로 파송하며, 또 계속하여 지원하고 관리하여 선교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는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적, 인격적, 그리고 영적으로 잘 훈련해야 할 것이다. 세 기관은 설립자의 선교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명이 분명하다.

승동교회는 1894 년 사무엘 무어(Samuel Moore)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반상의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시작되었다. 승동교회는 복음전파와 함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립자의 정신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WEC 국제선교회는 캠브리지 7 인의 한 사람이던 찰스 스텐드(C. T. Studd) 가 1913 년 중국선교를 마치고 병든 몸으로 또 다시 옛 자이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심장 선교회(The Heart of Africa

Mission)를 설립하면서 오늘날 WEC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전도종족 복음화”, “교회개혁”, 그리고 “선교동원”의 설립목적은 지금까지도 이어 오고 있다.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는 1860 년 당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웨슬리안 감리교 목회자들과 이 학교의 초대 총장이 된 조나단 블랜차드(Jonathan Blanchard)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그의 왕국을 발전시킨다”는 설립 당시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학교를 운영하므로 세속화 시대에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서 있다.

동양선교교회(OMC),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WMU)는 오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불타던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 받아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남기고 간 선교에 대한 열정과 신학을 문서화 한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계속되고 그의 선교신학이 후배들에게 복음전파에 대한 귀한 지침이 되고 앞으로 그의 사역을 연구하는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동선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관들은 그의 정신과 선교신학을 이해함으로 그의 선교 열정을 이어 받아 하나님나라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원고청탁을 받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기고자, 출판 경비를 지원해 주신 교회와 후원자들, 그리고 쿤란출판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임성진